

“초고유가 시대..성장보다 물가 안정을” 민간경제研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 상무 유병규

삼성, LG, 현대 등 국내 3대 민간경제연구소는 올해 국제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연평균 100~15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들 연구기관은 정부의 이번 고유가 종합대책의 방향이 맞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내수 등 경기 부양에는 미흡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경제팀의 고환율 등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제는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추진할 때라고 주문했다.

■두바이유 100~150달러 전망

3대 민간 경제연구소는 올해 두바이유가 연평균 100달러를 돌파해 최고 150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준으로 삼은 170달러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올해 하반기 평균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로 하락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올해 안에 유가가 배럴당 17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투기적 수요와 산유국의 정정불안 등이 가세하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미국 금리 인하 및 달러화 약세로 발생했던 투기적 수요는 빠질 것”이라면서 “그동안 추세적으로 상승압력이 지속되던 유가가 최근 추세선을 크게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일시적으로 15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급요인 등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으면 170달러 이상 유지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도 “현재 국제 유가가 140달러 턱 밑까지 상승했지만 올해 평균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10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말했다.

■성장률 4%·물가 3% 후반대

이들 경제 연구소들은 고유가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4.6~4.9%, 물가는 3.5~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당초 5.1%에서 4.9%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물가는 3.5%, 경상수지는 10억달러 적자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은 두바이유가 140달러를 돌파할 경우 성장률이 3%대로, 200달러를 넘어서면 2%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 본부장은 “두바이유가 140달러를 기록할 경우 성장률은 3.8%로 하락하고 물가는 3.8%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면서 “200달러를 넘어서면 성장률은 2.8%로 떨어지고 물가는 6.9%까지 상승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권 실장은 “올해 성장률을 4.7%로 전망하고 있으며 아직 조정할 계획이 없다” 면서 “물가도 유가가 하반기부터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3.9%로 예상하고 있다” 고 말했다. 오 실장은 “성장률은 4.6%, 물가는 4% 중후반대, 경상수지는 60억~80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고 말했다.

■성장보다 물가 안정에 역점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정부의 경제팀이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고유가에 따른 물가 안정 정책을 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고환율을 유지하면서 물가를 희생하려 했다” 면서 “그러나 유가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 이를 지속하기 어렵게 됐다” 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고환율 정책은 거시경제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유가나 물가를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짜야 한다” 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앞으로 대외여건 악화를 어떻게 내부적으로 잘 흡수하느냐에 주력해야 한다” 며 “가장 중요한 건 단기적인 성장 목표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고 밝혔다.

권 실장은 “경제팀은 정책의 우선 순위에 잘못된 측면이 있다. 그동안 경상수지 쪽에 지나치게 신경을 썼는데 이는 정책조합의 미스(실수)로 본다” 면서 “경제라는 게 어떤 목표가 있다고 모든 정책수단을 맞출 필요는 없다. 성장을 목표로 하더라도 재정을 투입하면서 (다른 경제운용 수단은) 물가 안정에 사용하면 된다” 며 정책 조합을 강조했다.

유 본부장도 “지금은 물가 불안이 심각한 만큼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성장정책이 필요하다” 면서 “물가 상승요인을 흡수해야 하지만 내수 위축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재정 지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함께 환율은 안정적으로, 금리는 인상보다는 동결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고유가 대책 에너지 효율화 필요

경제연구소들은 이번 정부의 고유가 종합대책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내수 활성화 등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 실장은 “정부의 재정을 투입할 때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고 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에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종합대책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면서도 “하지만 소비진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오 실장도 “이번 대책의 경기를 부양하거나 그동안 유가 상승에 따른 모든 충격을 흡수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면서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권 실장은 “우리 경제는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화가 필요하다” 면서 “이런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 고 말했다.

유 본부장도 “고유가 체제로 산업 및 소비체질을 바꿔야 한다”면서 “경제 체질을 바꾸고 원전 비율 등을 확대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